

**보도자료**

2010년 12월 5일(일) 배포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담당관 전영만 과장(☎750-1730)  
국제기구담당관실 이은희 사무관(☎750-1732) ehlee@kcc.go.kr**OECD 정보통신 작업반 부의장에 정태명 교수, 남상열 박사 재선**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는 지난 12.2~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9차 정보보호작업반(WPISP: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) 회의와 제28차 정보경제작업반(WPIE: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Economy) 회의에서 우리나라 정태명 교수(성균관대)와 남상열 박사(KISDI)가 2011년도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.

WPISP와 WPIE는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(ICCP: Committee for Information,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) 산하의 작업반으로 WPISP는 개인정보보호, 국가 사이버보안전략 등 온라인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, WPIE는 정보통신의 경제·사회적 영향과 발전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의장단 진출이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각 작업반의 국제적인 논의에 우리나라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정책개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2005년부터 OECD 정보경제작업반의 부의장에 진출한 정태명 교수는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받고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,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자문위원과 르완다공화국 ICT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. 끝.